

보험계 동정

● 야광 스티커 전국 배포

대한손해보험협회(회장 박봉환)는 교통 사고 예방 활동 사업의 일환으로 화물차나 경운기 등의 야간 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야광 스티커 20만매를 제작, 전국에 배포했다.

● 계약자별 사고 사항 수록

보험개발원(원장 전석영) 기업보험부에서는 92회계연도 선박보험 계약 및 사고 사항을 수록한 선박보험현황(1992)을 발간하였다. 본서의 발간이 손해보험사의 계약 인수 및 위험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일조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고객불편 전화 신고제도 운영

고려화재해상보험(주)(사장 김석린)는 보험계약자의 불편사항을 보다 빨리 해소, 보험서비스를 제고키 위해 '고객 불편 전화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평일에는 오후 6시까지, 토요일엔 오후 1시까지 신고 사항을 접수한다. 신고 전화는 724-9381~3이다.

● 해동사 창립 40주년 기념식

해동화재해상보험(주)(사장 김효일)는 지난 8월 25일로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김효일사장 및 전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장기 근속 사원 30명에 대한 표창 수여 및 전직원에 선물을 증정했다.

● 보험논문 현상공모

보험감독원은 보험에 대한 건전한 보험 문화 정착과 보험의 사회보장 기능 확대 등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오는 10월말까지 보험논문을 현상 공모하고 있다.(문의처: 보험감독원 조사부 399-8047~50)

● 고객 만족 코너 신설

현대해상화재보험(주)(사장 정몽운)는 계약자 불편 사항의 종합처리를 통한 평생 고객 관리에 나섰다. 계약자 보호 차원에서 고객의 불만과 불편함을 즉시 해소, 고객에게 차별화된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고객 만족 코너'를 신설, 9월 1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고객 만족 코너'의 크로바 서비스 ARS 24시간 접수는 080-023-1223번이다.

● 의무보험 가입률 저조

관련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선원근재보험 등 의무보험의 보험 가입률이 20% 미만에 불과하는 등 극히 저조하다고 한다.

이는 이들에 대한 관리 운영이 보험계와 상공자원부, 문화체육부, 해운항만청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어 관련 행정당국이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등 행정 조치가 뒤따라야 하나, 관리 감독이 소홀하고 사업자들의 보험 인식 부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방계 동정

● 호텔·병원 등 종합 안전 점검

서울시 소방본부(본부장 한금중)는 지난 7일 하얏트호텔 폭발사고가 보일러 관리 소홀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5천 79곳에 대해 8월말까지 두달 동안 종합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 민방위훈련 불참 과태료 만 부과

내무부는 지난 8월 29일 민방위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교육 훈련에 불참할 경우 현행 5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돼있는 민방위 기본법을 개정,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 소방 전술 시범 및 경연 대회 개최

부산진소방서(서장 이근수)에서는 지난 7월 16일 송정해수욕장에서 소방전술 훈련 강화의 달을 맞아 7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 전술 시범 및 경연 대회를 개최했다.

● 화재증명원 파출소에서 발급

마포소방서(서장 임춘봉)에서는 구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화재증명원 발급 업무를 각지역별 소방관 파출소에서도 즉시 발급하도록 소방 행정 제도를 개선하여 지난달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화협 동정

● 소방법 개정안 마련

내무부는 소방 행정 기능을 민간 자율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한 소방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화관리 업무를 태만히 하여 화재 등이 발생했을 경우 건물주도 처벌토록 하였으며, 특수장소의 소방 시설은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정밀히 이루어지도록 소방 시설 설계 및 감리업 제도를 신설, 소방 감리업체가 발부하는 완공 필증이 소방 공무원의 완공 검사로 대체된다.

또한 소방관서가 해오던 탱크의 누설 및 부식 등에 대한 안전 진단은 위험물 탱크 안전 성능 시험자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해 침수지역 순회 정비

여천소방서는 지난 8월 20~21일(2일간) 여천시·군 지역에 내린 집중 호우로 저지대의 많은 건물이 침수되자 소방 공무원 65명, 의용 소방대원 125명, 소방차 8대, 동력 소방펌프 6대를 동원 양수 작업과 토사 제거 작업을 지원하는 한편 소방·전기·가스분야에 대한 순회 무료 정비 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 충남 소방학교 신설

소방 전문 인력 양성과 소방 공무원 교육 수요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20일 천안시 유량동 산45-2에 부지 4천8백평, 연면적 1천1백15평 규모의 충남소방학교 개교 기념식이 있었다.

● 임원 선임

협회는 7월 1일 사원총회를 열고 선임 전무이사에 엄만섭 국회 기록편찬국장을, 이사에 정대춘 협회 감사실장을 선임, 7월 3일자로 재무부 승인을 받았다.

엄만섭 전무이사는 총괄 및 기획, 감사실을 관장하고 정대춘 이사는 점검 1,2,3부와 위험관리를 관장하게 된다.

● 방화관리자 초청 교육

협회는 지난 6월 29일 특수건물의 방화관리자 40여 명을 방재시험연구소로 초청, 시험·연구시설 견학에 이어 효과적인 방화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신입직원 채용

화협의 미래를 이끌어 갈 신입직원 채용시험이 지난 8월 20일 1층 강당에서 60여명이 응시한 가운데 실시됐다.

합격한 신입직원을 전공별로 보면 영어 2명, 건축 2명, 화공 2명, 전기 1명, 기계 3명, 전산 3명 등 총 13명이다.

● 해외 연수자 확정

협회는 석유 화학 공업의 위험평가에 대한 선진 외국의 기법을 도입하고 협회의 위험 관리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해외 연수자를 지난 8월초 2명을 확정하였다.

연수 기관은 미국 화학공학회(ALCHE)와 화학공정안전센터(CCPS)이며,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32일간이다.

● 한국통신공사 FILK STANDARD 채택

방재시험연구소는 한국통신공사 통신구내 케이블에 난연재 시공시 내화 충전구조재(관통부 밀폐재)에 대한 화재시험을 종전에는 UL마크만을 승인하던 것을 지난 8월 1일부터 FILK마크도 승인, 사용하게 되었다.

한국통신공사에서 구매하는 관통부 밀폐재에 대해서는 방재시험연구소에서 인증하는 FILK마크를 획득하면 판매할 수 있게되어 연구소에 대한 공신력이 대외적으로 한층 높아졌다.

● 방내화 시험체 양생장 증축

방재시험연구소는 방내화 시험분야중 중량물인 내화피복재의 시험체 제작을 위한 양생장이 시험의뢰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작업장의 협소한 불편과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4개월간의 공기를 거쳐 지난 7월 27일 방재시험연구소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증축식을 가졌다.

● 93년 제안 제출 활발

협회 기획조정실은 지난 7월 14일, 83년 이후 제출된 제안서의 목록을 제안 제도의 활성화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배부하였다.

협회에서는 제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각 부서에 표어 등을 부착해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